창립 2015년 3월 14일
주소 서울 서초구 마방로2길 20(2층 / 양재동241-5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2020년 2월 2일
성찬주일
6권 5호

생명이 움트는 언덕

움오름교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움오름교회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성 찬 주 일 예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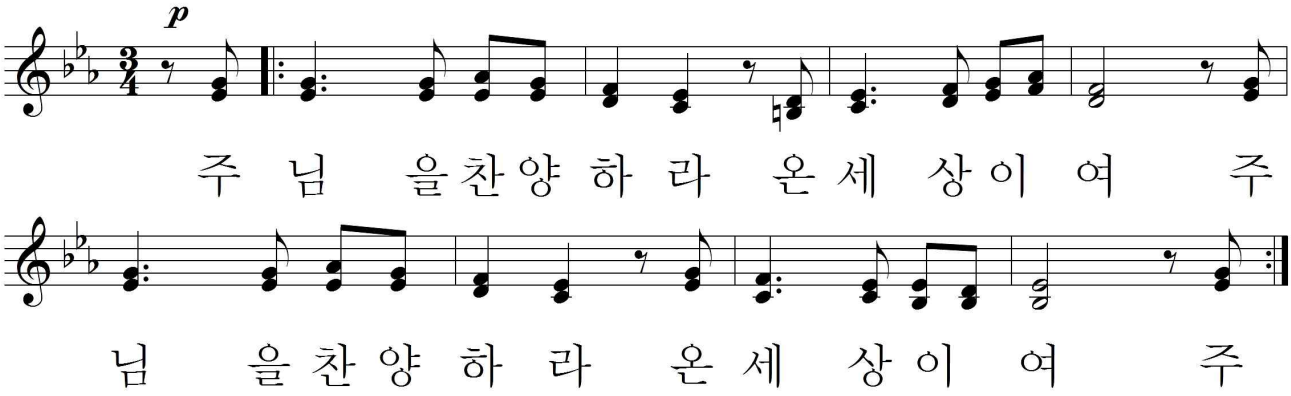
2020년도 표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요 18:4)

인도: 김영언

* 부름의 말씀 …… 시 15:1-5 …… 인도자

* 성령임재기원 …… 인도자

* 찬송 …… ‘주님을 찬양하라’ ……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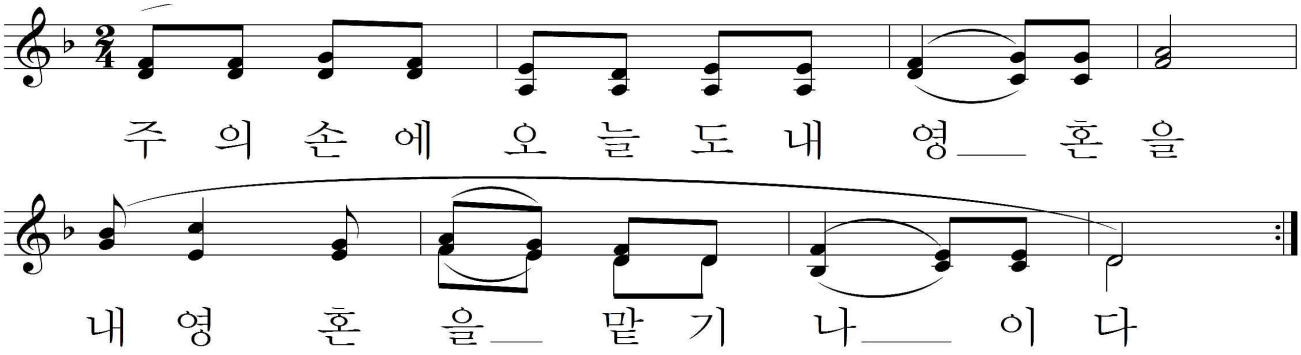


* 새해성찬기도 …… 다같이

1년 중 가장 짧은 달 앞에 서며 또 삶을 다짐합니다. 거칠고 차갑던 손을 놓으며 떠날 채비를 하는 겨울을 보며 다가올 봄 손님을 떠올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며 우리 신앙을 다짐합니다.

죽은 것처럼 움추렸던 잎눈도 꽃눈도 계절이 교차하는 이 짧은 달에 어둠을 헤집고 빛을 발하겠지요. 잔설이 응달에 자리를 깔고 아직은 매몰차겠지만, 봄기운은 산너머 불어오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건만, 아직 시작하지도, 또 시작하려 들지도 않은 나이 든 마음, 게으른 맘, 희망을 상실한 맘에 젊음의 기운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소서. 그리하여 겨울의 장막을 걷고 생명의 초장을 일구는 가장 짧지만, 가장 활기 찬 2월, 주님의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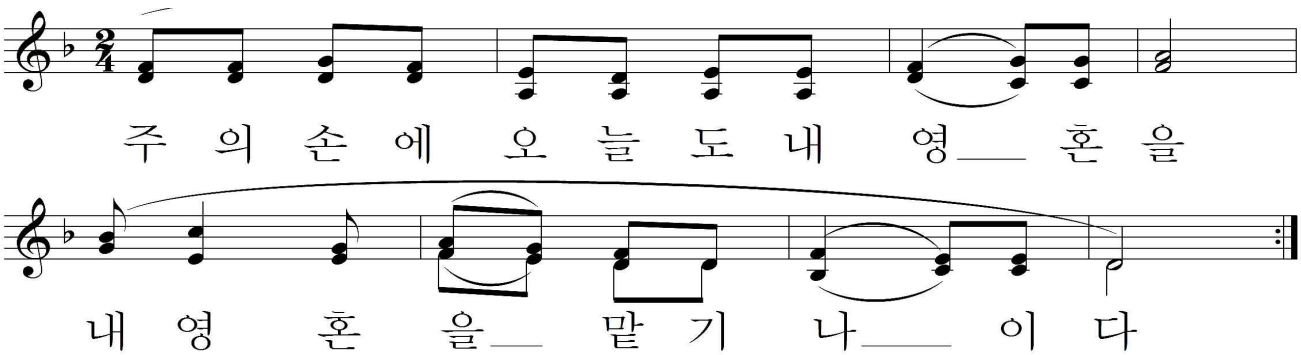


인도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 중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됨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잃었습니다. 선택받음이 특권이라 여기며 택함받지 못한 이들에 테두리를 그었습니다. 좌와 우를 나누었고, 남과 여를 구분했으며, 우리와 너희로 정의했습니다. 혐오와 배제가 자리했습니다. 마땅한 권리라 주장했으며, 타당한 주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역주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인도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렘 4:14)**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 찬송 …… 찬 421장 …… 다같이

기도 …… 황예지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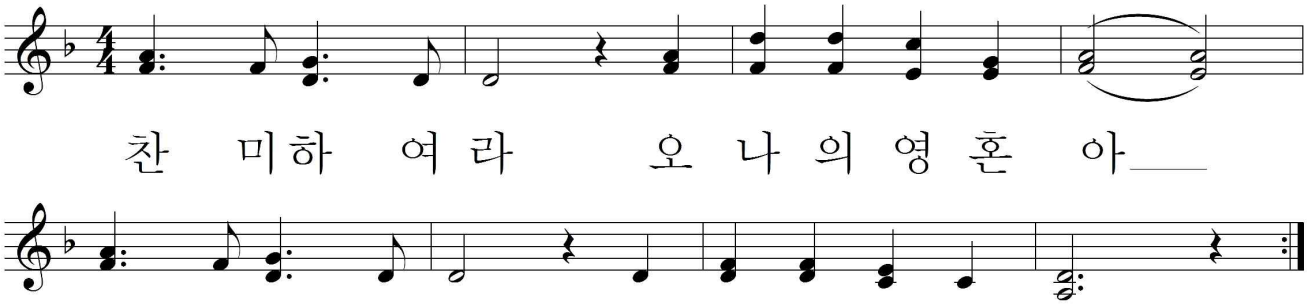
* 성경봉독 …… **요 18:12-14**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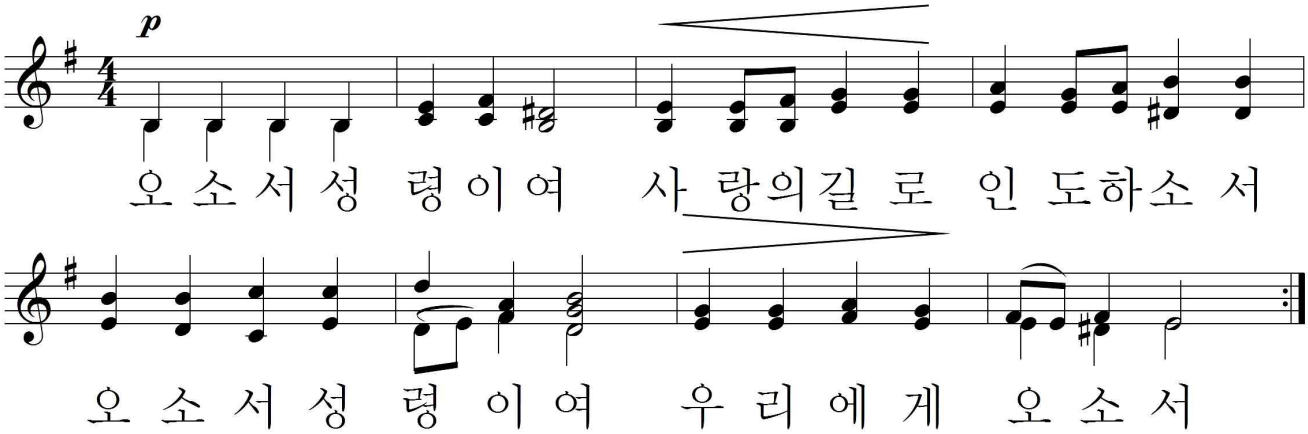
말씀선포 … **‘유익하다고 2’**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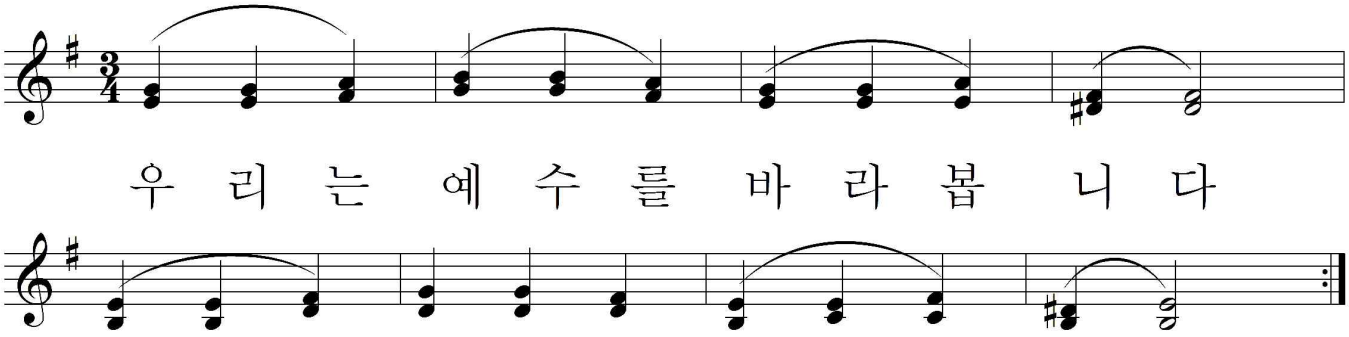
* 성찬으로 초대 …… 집례자

집례자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 성만찬 참여 ……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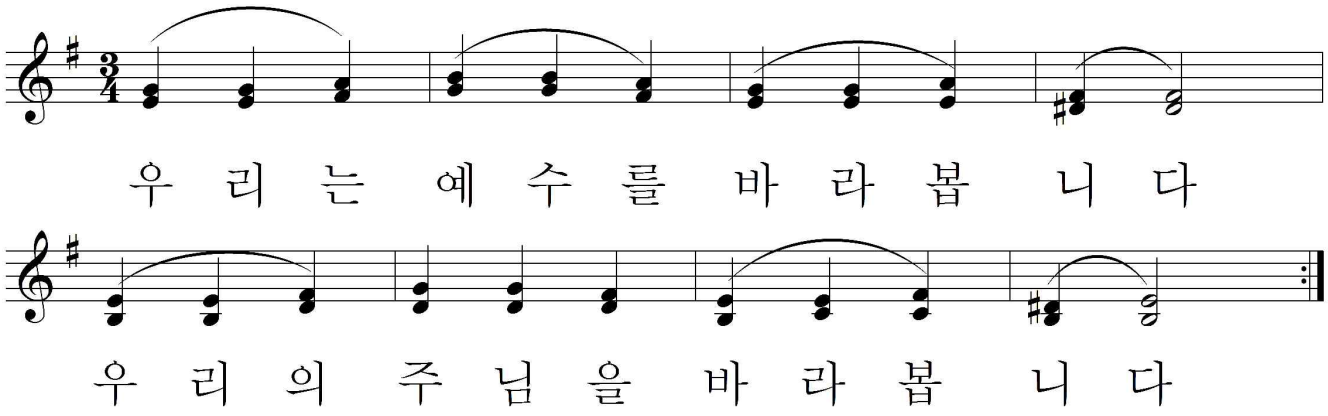
분병집례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분병 후 기도 …… 집례자

< 떡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분잔집례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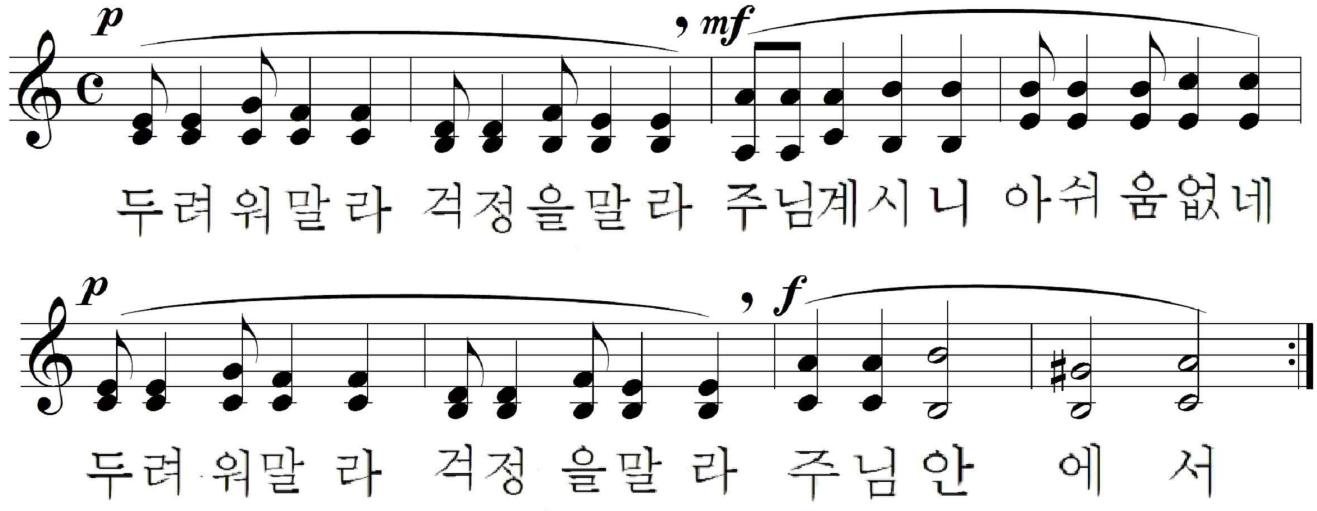


분잔 후 기도 …… 집례자

< 잔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 마신 잔은 왼쪽으로 전달했다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나눔찬양 …… ‘두려워 말라’ …… 다같이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봉헌기도 …… 인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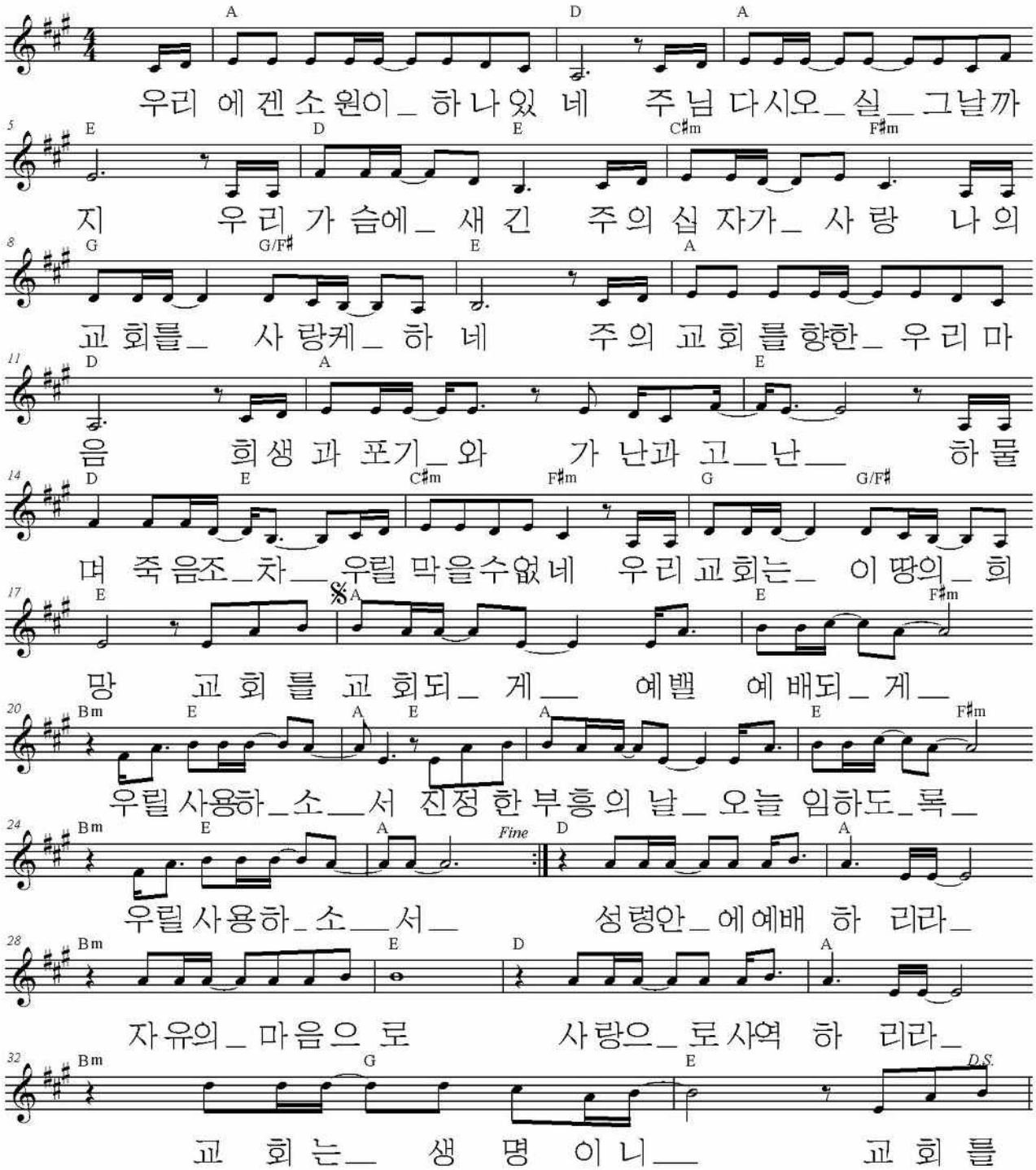
*봉헌: 이미란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 축도 …… 유경호

Meditation ……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황예지 *피아노: 양재웅)

환영과 알림 ……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